

10년 만에 무대 선 패티김... '원조 디바'의 귀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등 3곡 열창
26일부터 3주 걸쳐 공연 무대 공개
“관객 다시 만나려 올 것” 복귀 약속
후배들이 대표곡 재해석 무대 꾸며

“그동안 안녕들 하셨죠?”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
짧게 자른 백발의 헤어스타일에 강렬한 무늬의 브라운 롱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가수의 모습에 520여 방청객이 숨을 잠시 멈췄다. 가수의 얼굴에서도 긴장감이 한껏 묻어났다. 2012년 은퇴 선언 이후 10년 만의 무대. 하지만 가수는 이내 노련함의 여유와 미소를 드러냈다.

‘영원한 디바’ 패티김(84). 26일부터 3주 동안 이어지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의 주인공인 그는 이날 숨을 크게 내쉬며 마이크를 꼭 잡고 두 손을 양쪽으로 힘차게 내뻗으며 녹화의 막을 올렸다.

이날 그는 ‘이별’, ‘9월의 노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등 자신을 대표하는 세 곡을 열창했다. 여든의 나이에든 여전히 강렬한 에너지를 뽐내며 방청객들은 열띤 박수와 환호성을 내질렀다. 10년 만에 느끼는 열기에 패티김도 끝내 눈물을 흘렸다.

●절친한 후배 이선희, 축하 깜짝 방문

이날 패티김은 드레스와 몸에 꼭 맞춘 블랙 슈트 등을 바꿔 입으며 전성기 시절의 화려함을 자랑했다. 꼬박 12시간이나 걸린 고된 녹화에도 폭발적인 성량과 진한 감성을 마음껏 드러냈다.

가수 박기영, 서제이, 황치열 등과 아이돌 그룹 DKZ,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첫사랑 등 총 14(개)팀 후배들은 ‘사랑은

생명의 꽃’, ‘빛과 그림자’, ‘사랑은 영원히’, ‘사랑이여 다시 한 번’ 등 대선배의 대표곡을 저마다 스타일로 재해석해 불렀다. 패티김은 이들의 무대에 “한류의 주역들로서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려 달라”고 격려했다. 절친한 후배 이선희는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 그를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준비해 찾아와 감동을 안겼다.

그가 모든 출연자들과 함께 ‘서울의 찬가’를 부르면서 이날 무대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다. 패티김은 “10대 아이들부터 관록 있는 베테랑까지 다양한 후배들이 내 노래를 불러준 것이 흐뭇하고 대단히 만족스럽다”면서 “이번에는 10년 만에 왔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관객을 만나러 오겠다. 영원히 사랑한다”며 복귀를 약속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사로잡다

이날 방청객들은 전복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이들도. 패티김의 팬카페에서 ‘포에버 패티김’이라는 아이디로 활동 중인 16세 중학생, 독일에서 온 20대 대학생 등도 있었다. 이날 남편과 함께 왔다는 40대 조윤경 씨는 “패티김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라면서 “부모님과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등 히트곡을 다시 찾아 들으며 공연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후배들도 저마다 패티김에 얹힌 추억을 소개했다. 서제이는 “대뷔 이전부터 패티김의 창법부터 제스처까지 따라하며 노래를 연습했다”고 돌아섰다. 옥주현은 걸그룹 핑클로 활동한 1999년 패티김과 평양에서 공연을 펼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뮤지컬 ‘레베카’의 덴버스 부인 캐릭터를 패티김의 특징을 담아 완성했고, 덕분에 뮤지컬 배우로서 인정 받게 됐다”며 그를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가수 패티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무대에서 열창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

윤하·성시경·테이 역주행... ‘Y2K’ 감성에 물든 가요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아련한 향수 자극, 1020대엔 ‘신선’
윤하 ‘지평선’ 각종 차트 1위 올라
성시경·테이도 나란히 상위권 질주

스산한 기운이 더해가는 계절, ‘Y2K’ 감성이 가요계를 물들고 있다. 일명 Y2K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기의 전환기에 대중적 호응을 얻은 음악적 감성을 일컫는다. 당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윤하, 성시경, 테이, 박정현, SG워너비의 이석훈 등이 최근 아이돌 그룹 일색인 가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0대 이상 팬들에게는 아련한 감성과 향수로, 10~20대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가고 있다.

윤하는 새 앨범이 아닌 올해 3월 발표한 정규 3집 리패키지 ‘엔드 시어리: 파이널 에디션’의 타이틀곡 ‘지평선’으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13일 현재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7일 처음 역주행해 1위에 오른 후 6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여자)아이들, 르세라핌, 아이브, 뉴진스 등 나란히 ‘톱5’ 안에 올랐던 인기 아이돌까지 제친 결과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04년 데뷔한 윤하가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한 것은 2014년 7월 ‘우산’ 이후 8년 만이다. 윤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발매 222일, 486주 만에 1위...? 만화인가!!”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글을 올렸다.

사실 이 곡을 처음 선보였을 때만 해도

팬들의 반응이나 성적은 저조했다. 하지만 각종 대학 축제를 통해 선보인 무대가 유튜브를 통해 화제를 모으면서 입소문을 탔다. 여기에 개기월식이 펼쳐진 8일 우주의 법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랫말까지 묘하게 어울리면서 인기를 끌어올렸다. ‘시간의 지평선’은 블랙홀에서 관측되는 한 경계면을 의미하는 말로, 윤하는 앨범에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 예측되지 않는 이별 그 너머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하와 함께 음원차트에서 눈에 띄는 가수는 테이와 성시경이다. 이들도 신곡이 아닌 과거 발표한 곡으로 ‘역주행’해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윤하와 같은 해 데뷔한 테이는 인기 밴

드 버즈의 히트곡 ‘모놀로그’(Monologue·2003)를 리메이크한 동명의 노래로 차트를 접수했다. 성시경도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너의 모든 순간’을 톱 20위권에 올려놓으며 ‘발라드 황태자’의 타이틀을 입증했다. 이들의 인기는 계절적인 요인과 데뷔 후 줄곧 내세운 발라드 장르가 한때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현도 11일 디지털 싱글 ‘말 한마디’를 발표하며 가을 발라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말 한마디’는 올해 프로젝트 ‘포 시즌즈’(4 Seasons)의 마지막 음반으로, 그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가을 감성을 더해 음악 팬들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봄·바다·아이키·펄수, ‘소녀 리버스’ 진행

방송인 봄, 가수 바다, 댄서 아이키, 인기 캐릭터 펄수가 카카오펀터테인먼트 새 콘텐츠 ‘소녀 리버스’의 진행자로 나선다. ‘소녀 리버스’는 케이팝 걸그룹 멤버 30명이 정체를 감춘 채 버추얼 캐릭터로 변신해 데뷔 멤버 5명에 들기 위해 춤과 노래 실력을 겨루는 서바이벌이다. 진행자들은 직접 버추얼 세계 ‘W’에 들어가 심사위원이자 조력자 역할을 맡아 참가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콘텐츠는 28일 카카오펀터와 유튜브에서 첫 공개된다.



마블 스튜디오 신작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블랙 팬서2’ 개봉 5일 만에 100만 돌파

마블 스튜디오 신작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블랙 팬서2)가 개봉 5일째 100만 관객을 넘겼다. 13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블랙 팬서’가 이날 누적관객수 102만3928명을 동원했다.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체 예매율 1위 등극, 개봉 후에도 연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는 와칸다 국왕이었던 티찰라의 죽음 이후 위기에 빠진 와칸다가 수종 왕국 탈로칸과 갈등을 빚으며 운명을 건 전쟁에 나선 이야기를 그렸다.

‘두뇌 서바이벌’ 강자들 신작 생존 경쟁

정종연 PD, 넷플 ‘데블스 플랜’ 제작
진용진, 웨이브서 ‘버튼게임’ 선보여
티빙, 내달 현금 5억 ‘보물찾기’ 공개

‘생존’을 단 하나의 미션으로 내건 ‘두뇌 서바이벌’ 예능 콘텐츠들이 줄을 잇는다. 두뇌 서바이벌이란 참가자들이 각종 전략·추리·심리 싸움을 거쳐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관련 소재를 내세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이 글

로벌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포맷의 콘텐츠를 잇달아 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포맷의 ‘강자’로 꼽혀온 제작자와 OTT가 신작을 내놓기로 해 시청자의 호기심을 이끈다. tvN ‘더 지니어스’ 시리즈를 만든 정종연 PD, ‘머니게임’ 등의 유튜브 진용진, ‘여고추리반’ 등을 제작한 티빙 등이다.

정종연 PD는 넷플릭스 예능 콘텐츠 ‘데블스 플랜’의 제작에 최근 착수했다. 콘텐

츠는 참가자들이 최대 5억 원의 상금을 걸고 각종 게임을 벌이는 과정을 담는다.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1월 중 7일간의 합숙 촬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 PD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네 편의 ‘더 지니어스’로 화제 물이를 하면서 관련 포맷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이후 tvN ‘소사이터 게임’ 시리즈, 추리 소재의 tvN ‘대탈출’, 티빙 ‘여고추리반’ 등을 인기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는 최근 자리를 옮긴 제작사 테오의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그동안 관련 콘텐츠로 노하우를 쌓아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 더 논리적이고 경쟁의 재미를 부각시킨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진용진은 11일부터 웨이브를 통해 ‘버튼게임’을 선보이고 있다. ‘버튼게임’은 9명의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누른 버튼에 따라 자본금을 지키거나 잃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초반부터 이들의 배신과 술수가 난무하면서 SNS에는 각종 시청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공개 직후 웨이브에서도 인기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사이에서 ‘오늘의 톱 20’에 들었다.

티빙은 12월 ‘보물찾기’를 내놓는다. 24명의 참가자가 무인도에서 제작진이 숨긴 현금 5억 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티빙은 ‘여고추리반’ 시리즈, ‘제로섬게임’ 등 관련 포맷을 꾸준히 제작해왔다.

유지혜 기자